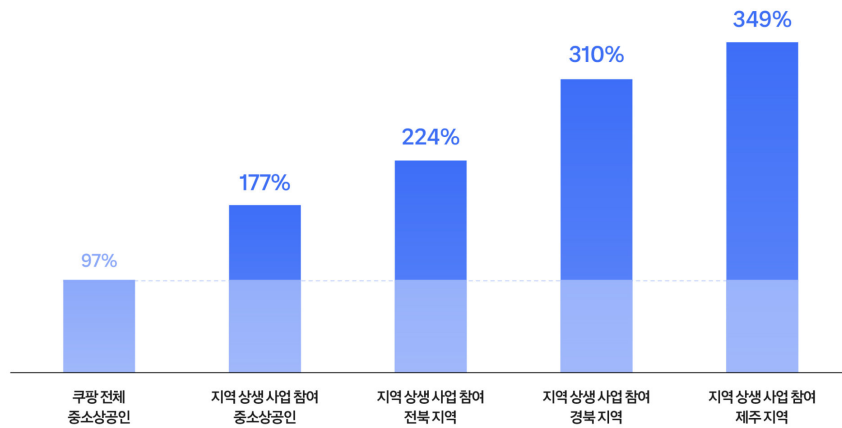


[보도자료] 쿠팡, 코로나19 이후 지역 상생사업 참여 중소기업 매출 177% 성장

2022. 8. 5.

쿠팡 지역 상생 사업 참여한 중소기업 매출신장률



*참고: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신장률

- 판로 확대 지원 위한 쿠팡 지역 상생사업 참여 중소기업 전년 매출, 2019년 대비 177% 성장
- 코로나19 어려움 겪었던 경북 및 2020년 2월 로켓배송 시작한 제주, 각각 310%, 349% 성장
- 쿠팡 직매입으로 중소기업은 생산에만 집중 가능 메인 홈페이지 광고 포함 각종 마케팅 지원까지

2022. 8. 5. - 쿠팡이 지역 상생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매출 성장까지 이끌어내고 있다.

쿠팡은 지역 상생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2021년 매출이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19년 대비 177% 성장했다고 5일 밝혔다. 이는 쿠팡에 입점해 있는 전체 중소기업의 동기간 매출 성장률인 97%보다 80%나 높은 수준이다. 한국신용데이터(KCD)가 밝힌 2020년과 2021년의 전년 대비 전국 소상공인 매출 신장률이 각각 -10.2%, -1.7%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대조적이다.

특히 코로나19 확산 초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북지역과 2020년 2월 로켓배송을 시작한 제주지역은 각각 310%, 349%의 높은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. 쿠팡의 지역 상생사업을 통해 로켓배송에 첫발을 내디딘 경북 경산 소재의 참푸드팜 현진규 대표는 “쿠팡과 경상북도가 함께 준비한 입점 품평회를 통해 회사 상품의 판로 확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”며 “할인 프로모션, 광고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상생기획전에 참여함으로써 입점 초기 대비 매출이 17배나 성장하게 됐다”고 말했다.

‘힘내요 대한민국’ 등 쿠팡의 지역 상생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판로를 잃은 지역 소상공인과 농축산인들을 위해 처음 진행됐다.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쿠팡의 직매입을 통해 제품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메인 홈페이지 광고를 포함한 마케팅 지원까지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다. 지금까지 대구, 경북, 경남, 충북, 충남, 광주, 전북, 제주 등 전국구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특산물과 상품을 쿠팡 고객에게 선보였다.

쿠팡은 1천8백만 명이 넘는 압도적인 활성 고객 수를 바탕으로 제품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래환경, 광고비 부담 없는 아이템 마켓, 투명한 수수료 기반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대표적인 중소기업 친화적 이커머스로 자리매김했다.

박대준 쿠팡 신사업 부문 대표는 “쿠팡은 거래업체의 80% 이상이 중소기업이며, 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

있다”면서 “쿠팡은 앞으로도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넓혀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